

광주 고등학생들, 취업으로

‘실력 광주’ 증명했다

한전 공채 31명 합격...인턴 거쳐 정규직 입사

올해 한국전력이 진행한 고졸 공채인 '2019 고졸 채용형 인턴 모집'에 광주시교육청 고등학생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은 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인턴근무와 일부 분야는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주소, 학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진행되는 등 채용에 형평성이 강화됐다.

25일 한전 합격자 발표와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에서 24명(전기 분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명(전기 분야), 전남여자상업고등

학교 3명(사무 분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명(사무 분야) 학생이 합격했다.

지역 고등학생들의 다수 합격과 관련해 지동화설비공고 이을호 취업부장은 "학생 스스로 토론과 컨설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의 일상화가 취업역량강화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학생들이 '지·덕·체·기'가 조화로운 휴먼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공고 이용선 취업부장은 합격한 학생들에게 "산업기사 자격증도 꼭 취득하고 정규직 전환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라!"고 당부했다.

전남여성 정현범 교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왔다"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여성 김홍록 교감은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채용은 6월27일 채용공고가 나서 7월9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하고 7월23일 서류전형 발표, 8월3일 직무능력 및 인성검사, 8월28~30일 직무면접, 9월 19~20일 종합면접을 실시해 9월25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조인호 기자

담양Wee센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담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학기 상담주간을 맞이하여 25일 담양중학교 1, 3학년 총 141명을 대상으로 담양중학교 대강당에서 '위·하·여' (Wee센터와 하나되는 여행) 프로그램 3차를 운영했다.

'위·하·여'는 담양교육지원

청 주관, 담양경찰서·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 4개 기관이 협력하여 기관별로 특색 있는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프로그램이다. 지역유관기관들이 함께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충족

시키는 동시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지해 또는 자살 등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고자 담양지역 청소년 상담 유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양한 상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드라이플라워 염서 제작 및 양말목 공예, '괜찮니' 염서쓰기, 생명사랑 트리 만들기, 디퓨저 공예, 간이심리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우관계에 관한 양케이트 조사를 하여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 및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화를 공유하기도 했다.

Wee센터는 앞으로도 담양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시교육청, 세계인권도시포럼 '어린이청소년' 주제회의 개최

인권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주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일 오전 9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권도시 광주, 다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9회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 세션으로 개최되

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유럽 도시들에서의 노력(애드리안 보체, 이동전화도시를 위한 유럽네트워크)과 일본 이동권리조례 이후 현황과 과제(아라마키 시게토, 야나마시 가쿠인대학 교수) 등 해외 사례가 먼저 발표된다.

이어 국내 다른 도시들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노력(김형욱, 전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옹호관)을 확인하고, 광주의 현황과 과제(고병연, 광주시교육청 장학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후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이 이어진다.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며 "광주공동체가 어린이청소년 인권, 학생인권 버전 2.0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모두의 온전한 성장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모색



전남도교육청이 25일 나주시 스페이스코워 전남혁신점 타운홀에서 초·중·고교원 80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올해로 벌써 3번째인 이번 연수는 지난 6월과 7월 열린 역량강화 연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 제도권의 규격화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요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안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타운홀은 교원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이번 연수는 통진교육연구소 김희동 대표의 '구성원 모두의 온전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다.

학생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인사말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늘

고 있는 참여 인원을 보며 대안교육 발전의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전남에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학교와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열정적이며 역량있는 교원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남대안교육실천연구회에 의뢰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전남Wee스쿨 '이음' 등 교직원과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안교육실천연구회 서재준(청림중학교) 대표는 "향후 대안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교육과 발전적인 대안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기관 탐방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안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는 한마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시작했다.

2학기 동안 초·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진행된다.

'우리는 한마음' 집단상담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력 향상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체험과 참여에 중심을 두며, 사제 간 배려심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한마음' 프로그램은 기존의 강의 중심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형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협동하는 활동 중심의 집단상담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

해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한 5학년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동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 정말 재미있고, 잘 몰랐던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무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